

건설자동화 기술위원회 분과 회의 (3차)

□ 회의 개요

- 일시 : 2024년 8월 21일 (수) 16:00 ~ 18:00
- 장소 : 서울역 KTX 6 회의실
- 참석 : 건설자동화 기술위원회 토공자동화 분과 회원사
- 주관 : 리딩사/삼성물산(주) 건설부문, 간사/건설자동화·로보틱스학회

□ 회의 순서

시간		내용	비고
16:00 ~ 16:10	10분	• 개회 및 내빈 소개 / 인사말	영신디엔씨 최평호 전무
16:10 ~ 16:20	10분	• 토공자동화분과 운영일정 공유	영신디엔씨 최평호 전무
		건설자동화 기술위원회 세미나	10월 킨텍스
16:20 ~ 17:20	60분	• PoC 기업 매칭 진행사항 공유	영신디엔씨 최평호 전무
		• 최신 건설시장/동향 내용 공유	영신디엔씨 최평호 전무
		2024 PARIS INTERMAT	
		2024 JAPAN CSPI EXPO	
		i-Construction 2.0	
17:20 ~ 18:00	40분	• 정책 및 제도 개선안 도출	각 회원사

□ 회의 내용

-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건설자동화 기술위원회 기술세미나 안내
 - 행사명 : 한국국제건설기계전(CONEX KOREA 2024) 킨텍스
 - 장 소 : 킨텍스 제1전시장 세미나룸
 - 시 간 : 13:00 ~ 16:00 (약 3시간)
 - 기술에 대한 소개 위주의 기술발표 희망기업에 대한 접수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건설자동화 기술위원회의 기술 세미나 개최(안)

일시 : 2024년 10월 25일(금요일) 오후 1시 ~ 3시30분
장소 : 킨텍스 제1전시장 세미나룸

개회 인사말 & 건설자동화 기술위원회의 진행 상황	리딩사 삼성물산	20분
건설로봇 분과 기술발표 1		10분 + Q&A
건설로봇 분과 기술발표 2		10분 + Q&A
건설로봇 분과 기술발표 3		10분 + Q&A
토공자동화 분과 기술발표 1		10분 + Q&A
토공자동화 분과 기술발표 2		10분 + Q&A
토공자동화 분과 기술발표 3		10분 + Q&A
3D 프린팅분과 기술발표 1		10분 + Q&A
3D 프린팅분과 기술발표 2		10분 + Q&A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윤성박사	20분

사회 : 건설자동화로부터닉스 학회 김정철 교수

발제 : 분마별로 발표기관 선정

기술발표 : 제품종류 보다는 기술트렌드 및 기술설명

한국국제건설기계전(CONEX KOREA 2024) : 건설자동화 기술세미나 / 킨텍스 제1전시장 세미나룸 / 13:00 ~ 16:00

제12회 한국국제건설기계전 개요 (CONEX KOREA 2024)

- 행사개요
 - 주관 : 제12회 한국국제건설기계전 (연말) CONEX KOREA 2024
 - 후원 : 대한건설협회 (2024), 한국건설기계협회 (2024), KCI (2024)
 - 개최 : 2024. 10. 25(목) ~ 27(토)
 - 장소 : 킨텍스 1관(전시관-5층)
 - 문의처 : 21.29444
 - 주최/주최/후원 : 산업통상자원부/한국국제건설기계산업협력기독교동부
 - 후원기관 : 대한민국기계협회 등 14개 유관 단체
 - 행사내용 : 3D프린팅, 로봇, 드론, 인공 지능 등 최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세미나 및 제품

< RAD KOREA WEEK 구성 전시회 >

연번	전시회명	기간	장소	주최사
1	한국국제건설기계전	10.25(목)~27(토)	킨텍스 1	대한건설협회
2	로봇쇼	10.25(목)~26(금)	킨텍스 1	로봇산업협회
3	공정도시전	10.25(목)~26(금)	킨텍스 2	한국도시개발회
4	디지털라이프	10.25(목)~26(금)	킨텍스 2	경기도, 킨텍스
5	디지털라이프	10.25(목)~26(금)	킨텍스 2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6	The AI Show	10.25(목)~26(금)	킨텍스 2	AI융합산업협회
7	고급 드론 드론쇼(드론쇼) 특별전	10.25(목)~26(금)	킨텍스 2	고급 드론, 킨텍스

참고 1 RAD KOREA WEEK(대한민국 첨단기술주간)

- 행사명 : RAD KOREA WEEK(대한민국 첨단기술주간)
- 주제 : Robot, AI, Drone and Digital Tech
- 목적 : 첨단산업의 초대형 융합형 마케팅제이스 구축
- 기간 : 2024. 10. 31(월) ~ 27(토)
- 면적 : 100,000㎡ (킨텍스 1~3관)을 전량
- 구성 : 첨단산업 분야의 7개 전시회 * 중대형전시회, 유망 연계 개최
- 운영 : 국내외 대학 및 기관과 공동 주최/수출지원 등 박람회 공동 운영 등
- 개최과 : 정부, 대학, 산업계, 지자체, 민간, 해외 기업 컨소시엄(사)위 운영
- 문호, 시, 드론 등 저용량 서비스와 혁신 영역이 참가해 공유
- 「첨단과학기술」 연계 수출상담회 개최 시, 초청 바이어 확대 및 신비드 재고



YOUNGSHINE

- 회원사별 PoC 매칭 진행사항 공유
 - 파일관입량 및 리바운드량 자동측정 시스템 PoC 진행사항 공유
 - 스마트 다짐관리 시스템 PoC 계획 공유
- 최신 건설시장/동향 내용 공유
 - 미래 지향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 공유
 - 2024 PARIS INTERMAT 전시회 참관 내용 공유
 - 2024 JAPAN CSPI EXPO 전시회 참관 내용 공유



YOUNGSHINE



YOUNGSHINE

- 일본의 i-Construction 2.0 에 대한 정책 소개(3가지의 목표 및 추진활동)
-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발주처, 시공사, 협회, 기업 등의 부단한 노력과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 및 정책이 절실

○ 정책 및 제도 개선안 도출

- 턴키 입찰 및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스마트 기술 및 예산은 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처와 시공사의 관심이 반드시 제반되어야 함.



- 일본의 정부 부처(국토교통성)는 스마트 기술에 대한 모든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스마트 기술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증/검증하는 절차가 없어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음.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선진국에서 도입된 기술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다소 낮음.
- 또한, 일본의 경우 시공사에서의 스마트 기술 사용 실적에 대한 후속 공사의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의 스마트 기술의 적용성을 높이는데 활발하게 활동함.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적인 예산을 반영하거나 법인세를 지원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이 절실함.
- 스마트 건설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함. 발주처와 같이 관공서의 경우 2년마다 담당자가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업무의 지속성이 없으며, 이와 같은 전문직의 경우 고정된 인력으로 기술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의 적용성을 고도화하는데 관공서의 인사 제도 개편이 필수임.

- 국내의 경우, 갑작스런 스마트 건설 붐으로 인해 일부 기업들의 스마트 기술 홍보 및 영업에 집중되어 과대포장이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자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짐.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시, 짧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의 원가절감 등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사유로 사용자의 실망감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확대 적용됨에 있어 한계에 봉착됨. 따라서, 결과만을 위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현실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동장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국내 건설기계 시장은 지입사장이 건설기계를 보유하고 운용하기 때문에 스마트 기술(M/G, M/C)을 장착한 개인차주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필요함. 하루 8시간 근로함에 있어 스마트 기술(M/G, M/C)을 장착하지 않은 개인차주와 동일한 처우를 받기 때문에 초반에는 생산성이 높지만, 나중에는 생산성이 떨어져 하향 평준화가 되는 현상이 발생함.
- 단순 건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정부 부처(국토부,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외에도 기재부와 같은 국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처와도 심도있는 대화와 협의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국내 건설시장의 스마트 건설의 적용과 발전에 있어 실효성이 클 것으로 판단됨.
- 기업내 부서간(연구직, 시공직, 영업직) 정보교류 미흡으로 기술이해 및 전파가 더디고,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는데 장애가 있다고 인지하고 있음.
- 공사기간중 스마트건설기술의 적용에 대한 평가테이블과 판단기준이 없다면 지속되기 어렵다고 생각되며, 스마트건설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이익에 대한 공유(인센티브 등)가 필요함.
- 현장의 소장과 직원들의 마인드가 중요하며,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계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회의 사진

